

나무가



[해제]

"<나부가>의 작자와 창작 연대는 미상이나, 규장각본, 장서각본과 李埈煥 소장본(충남 천안) 등 세 이본이 전하고 있다. 이 중 규장각본의 서문에 보이는 ‘癸卯 正月二十日’이라는 기록과 이정환 소장본의 필사자인 이정환의 조부 李峻永의 생몰연대가 1879~1907년(필사 연대를 이준영이 군관학교 장교로 복무했던 1900~1907로 추정)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나부가>가 19세기에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부가>는 가사의 내용상 한자로 ‘懶婦歌’로 표기되는데, ‘懶婦歌’는 곧 ‘게으른 부녀자의 노래(게으른 부녀를 선도하기 위해 지은 노래)’라는 의미이다. <나부가>의 작자는 지나간 시대의 부인들에 비해 행실이 게으른 ‘금세夫人’이 ‘현철부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부도(婦道)와 관련된 행실들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한기는 「가사 『懶婦歌』의 형성배경에 대한 연구」(어문연구 제34권 제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에서 <나부가>가 18세기 후반 이후 부녀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 간의 화목을 깨뜨리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실제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사족이 경화사족과 향촌사족으로 분화되면서, 향촌사족은 사족의 지위를 영위하기 위해 가족과 문중을 중심으로 향촌사회의 질서를 강화하고 치산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꾀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가족과 가문이 해체의 위기에 놓이게 되므로, 가정의 살림을 끌어가는 부녀자의 근면과 검소는 치산을 위한 필수 덕목이었던 것이다. 한편, <나부가>는 4음보 정격을 탈피하여 5음보 및 6음보의 음보율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나부가>는 서사-본사-결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이본의 <나부가>에 비해 서사 부분의 결함이 심한 편이다. "

[원문]

나부가
 어와나부 드러보소 五六月 帑악베틀
 논갈고 밭갈기는 농부의 직분이오
 長安大도 너은제 재판물미미 혼은것도 문물장사 직분이오
 손용의 진노리로 늬복손의 늬무하기 초군의 직분
 구구중심 막연하여 천문광하 비표하기 뒤목중의 직분이오
 문경총파 일엽선의 괴기잡아 심이하기 어부식의 직분비오
 청누化유 고분티도 호통농조 청결하기 기송의 직분이오
 소고동동 쑤드리면 혼푼돌나 손버리기 늬스동의 직분이려
 허물며 스부되 부인은 직분도 더욱은트
 七八세 어릴씨에 친정에 빈운힝실
 계초명에 관수하고 제스씨에 직게하야
 슬효적 化늬수오며 봉적집기 일숨아서
 이복집기 비와니고 니척편 열여전을
 시시로 펠농하야 규門복게 쳐즈힝실 썩가드가
 이십세 출가휴에 시부모게 호성잇고
 익흔술신 폐치물며 봉제스 썩빈직도
 지성으로 허려이와 든정흔 티도와
 온순 노빛트로 7중으게 공경하며

어언으 구중쓰티 니올투고 불명몰며
 너유몰 열년듯고 질은서 실제몰며
 굉연 투기후아 칠겨지악 범말몰며
 남노ᄇ비 부리기는 온의로 주중후고
 횡동겨지 범칙체모 스스이 조심후쇼
 일러흔 온갓 예범규비케 못홀진틴
 아모리 미녹흔들 질삼조차 못홀손야
 이연무로 엇느즈 부렴질숨을 이을삼네
 天上네 직여성은 겐우성을 위후야
 다가운디 계수느유 恩독기로 베셔드가
 매틀흔쌍 겨려노코 그우에 놓피안즈
 비든쓰기 일을삼고 수中고여 덜도
 패금쓰기 일乙삼고 실농씨 皇제뉘인
 三四月 진진히예 횡주처미 털치리고
 좆농후기 일乙삼고 周文王 太王도
 갈在오실 둘너입고 갈동시을 지으니고
 文朴에 어머임은 강太公의 쓰이로디 질숨乙 몸소후고
 혼은에 체夫人 長上셔으 안히로디 비든쓰기 일을숨고
 구구갈구 봉송여은 호안봉乙 지어시니
 가소롭드 금세夫人 저디지 게을턴가
 처음에라 이흔홀제 일등이르 운운커던
 눈도풀고 붓털울르 신힌송뚝 죽은이셔
 六예짜츄 드리오니 어골은 근사후다
 시오막이 겨동보쇼 메볼사롱 유돌후야
 어여分 닉메느리 송홀시르 병덜시라
 시흔시정 금안후고 잠졸자르 등夫후며
 봉감금고 봉의씻키 그겨조차 몰기더그
 묘로신 夫女은 후려잇털 점점돌나
 닉티후기 주중후드 빛조현 괴솔르
 이디지 쓰기던가 얼굴이 나고
 분치로 치중후기 일삼아서
 늦부로 머리빋고 分부러고 이집저집 出入홀제
 아흠푹 진처미 기리디 쑹에씨어
 오촌틱 칠촌틱 일도업시 왕닉
 눈치도 과이업네 념원눈줄 모로논가
 이러그로 쇼일후고 어은여괴 셔간스리
 쇼부치슨 후느치로 약간곡석 더려놀제
 괴기중스 과실중 외눈쇼리 귀예얼은드고

옥식각식 불너드리 종전악취비닉여
 이것저것 스드리여 이아쥬며 저아준다
 메쥬쇼금 육ㅎ두고 짐중ㅎ기 사임부이
 조석씩 임時ㅎ면 종연불너 ㅎ온무리
 압집어 지영쑤고 뒷집어 짐치어더
 후씩요롱 아이ㅎ고 휘정거리 문저먹고
 도표총웃 지얼씩면 치손ㅎ기 ㅂ분ㄷ시
 컨딕이 쫓그잇시 적은딕이 족히썰을
 스면으로 요촉ㅎ여 이것저것 ㄷ기노코
 인스 인노ㄷ시 두지단지 ㅅㅅ금겨
 종연불너 ㅎ온몰리 수이이제 이늑뵈메
 써ㄷ열어 손이지은이복 ㅅㄷ린덜 고불쇼가
 그겨시늑 저ㅎ다시 가중으게 쏘기여셔 숨시조랑 ㄷ우ㅎㄷ
 이리저리 ㅎ비ㅎ고 나문양식 이실손가
 제스씩을 동ㅎ면은 ㅄ살ㅎ되 옛지변통ㅎ며
 살람의 손임와도 ㅄ어시로 ㄷ적ㅎ고
 억구진 가중이라 원몽ㅎ며썸 ㅅㅅㅎ는몰리
 ㅂㅇ 도업은 요양분아 변통성도 과이업네
 환지빋 제우닉여 千문변 변통ㅎ면
 인역복이 싱긴ㄷ시 군동치로 ㅄ치닌ㄷ
 총복ㅎ고 ㄷ문엄식 농알시ㄷ 간수ㅎ여
 오시六시 ㅄ목오니 식상ㅎ여 ㄷ은봉구
 우러그로 참을손가 七八月 초린베틀
 셔돌그정 그져두고 초성의 집던보션
 그뭉그정 뒤치ㄷ어 어린아히 울면
 ㅄ머긴ㄷ 유세ㅎ고 숨스월 ㄷ늑쥬이
 폭중우 ㅄ튀리고 자ㄷ아히 ㅄ머기고
 히가ㄷ줄 모로다가 시뵈임 지침소리
 삼썸놀닉 이러안쫓 눈귀비를 휘비면서
 ㅎ턴머리 ㄷ시엔고 ㅎ품에 몬이기셔
 지지기 ㅅㅅㅅㅅ며 쫓던현적숨 기꺾고
 ㅎ손으로 무릅중고 인늑셔니
 처미폭에 아히썰은 여계저계 불여잇고
 방구역에 현두드기 여계모동 저계모동 모동모동 ㅅㅅ이구늑
 ㅄ구갓튼 ㅂㅇ 고꺾지 남식도 부쑤럽ㄷ
 이웃집의 초송닉면 지히업ㄷ 일안ㅎ고
 압집의 베틀소리 염병의 옹기ㅄ구꺾
 기스ㄷ ㅎ는무리 저려ㅎ면 부지될기

니폴조졸 시먼이 니복이 어디갈가
귀경이르 잇드흐먼 남먼저 움질이고
아히션드 유세하고 신거춧기 괴변일네
모기석유 伏성외춤 온갓실과 어이그리 잘춘난고
물늬자리 자불기와 양기썩의 이잡기을 어이그리 심씨노고
시오몬이 어질마음으로 슌슌경게흐먼 지그은줄 지모으고
문된고집 더욱늬여 총이이 흐논물
본티성이 그런저실 직금어이 곤치노고
그가중 얼넌듯고 흐물계우 썩지시먼
이불씨고 드러누여 스알늬알 몰안하고
족금흐먼 썩썩긧고 헛티롤면 히히긧네
썩은은문 흐난체로 품운전 속힝전을
무음우에 언저논코 롬보긧고 흥흥린다
긧긧늬 몸된투기딛 모로고 강서하다
어와세상 나부드라 이늬물숨 경계하여
부딛부딛 경계하여 현철부인 되야시라

[현대역]

나부가

어와 난부(懶婦) 들어보소 오뉴월(五六月) 띄약별에
 논 갈고 밭 갈기는 농부(農夫)의 직분(職分)이오
 장안대도(長安大道) 넓을 때 가판물 매매(賣買) 하는 것도 만물장사의 직분(職分)이오
 산옹(山翁)의 긴 노래로 남북산(南北山)에서 나무하기 초군(樵軍)1의 직분(職分)이오
 구구중생(九九衆生) 마련하여 천만광하 배포하기 대목장의 직분(職分)이오
 만경창파(萬頃蒼波) 일엽선(一葉船)에서 고기 잡아 생업(生業)하기 어부사의 직분(職分)이오
 청루화촉(靑樓火燭) 고운 태도(態度) 호탕남자(豪宕男子) 치결(致結)하기 기생(妓生)의 직분(職分)이오
 소고(小鼓)를 동동 두드리면 한 푼 주라 손 벌리기 남사당의 직분(職分)이라
 하물며 사부(士夫)덕 부인(婦人)은 직분(職分)도 더욱 많다
 칠팔세(七八歲) 어릴 때에 친정(親庭)에서 배운 행실(行實)
 계초명(鷄初鳴)2에 관수(盥漱)3하고 제사(祭祀) 때에 재계(齋戒)하여
 변두제(邊豆祭)4 적에 화순(和順)하며 방적(紡績) 짓기 일삼아서
 의복(衣服) 짓기 배워내고 내칙편(內則篇)5 열녀전(烈女傳)6을
 시시(時時)로 편람(遍覽)하여 규문(閨門) 밖의 처자행실(處子行實) 닦았다가
 이십세(二十歲) 출가(出嫁) 후에 시부모(媿父母)에게 효성(孝誠) 있고
 익훈술신 폐(廢)치몰며 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賓客)도
 지성(至誠)으로 하려니와 단정(端正)한 태도(態度)와
 온순(溫順)한 낫빛으로 가장(家長)에게 공경(恭敬)하며
 어른의 꾸중 끝에 내 옳다고 발명(發明) 말며
 남의 말 얼른 듣고 지레 나서 실체(失體) 말며
 공연(空然)히 투기하여 칠거지악(七去之惡)7 범하는 말을 말며
 남노여비(男奴女婢) 부리기는 온의(溫意)로 주장(主張)하고
 행동거지(行動舉止) 범백체모(凡百體貌) 사사(事事)이 조심(操心)하소
 이러한 온갖 예법(禮法) 구비(具備)하게 못할진데
 아무리 미혹(迷惑)한들 길쌈조차 못할쏘냐
 이런고로 옛느조 부럼 길쌈을 일을 삼네
 천상(天上)에 직녀성(織女星)은 견우성(牽牛星)을 위하여
 달 가운데 계수나무를 은(銀)도끼로 베어다가
 베틀 한 쌍 걸어놓고 그 위에 높이 앉아
 비단짜기 일을 삼고 수중(水中) 고여 덜도
 패금짜기 일을 삼고 신농씨(神農氏) 황제부인(皇帝婦人)
 삼사월(三四月) 긴긴 해에 행주치마 펼쳐입고
 잠농(蠶農)하기 일을 삼고 주문왕(周文王) 태사임(太士壬)도
 갈대옷을 둘러 입고 갈담시(葛葦詩)8를 지어내고
 문백의 어머니는 강태공(姜太公) 쓰이로되 길쌈을 몸소하고

화은의 처 부인(夫人)은 장상(將相)의 아내로되 비단짜기 일을 삼고
 과과갈구(科科葛履) 봉상여(奉裳女)는 호인복(好人腹)을 지었으니
 가소롭다 금세부인(今世夫人) 저다지도 게으르던가
 처음에 의혼(議婚)할 때 일등(一等)이라 운운(云云)커든
 눈도 팔고 발을 팔아 신혼 상담9 장만하셔
 육예(六禮六) 갖춰 데려오니 얼굴은 근사(近似)하다
 시어머니 거동(舉動) 보소 내외(內外) 사랑 유달하여
 어여쁜 내 며느리 상(傷)할세라 병(病)들세라
 신혼시성(新婚省) 금(禁) 안하고 잠 잘 자라 당부하며
 반감(半減)하고 방아찝기 그거조차 말리더니
 묘로신 부녀(夫女)는 하루 이틀 점점 달라
 나태하기 주장한다 빛 좋은 개살구
 이다지 속이던가 얼굴이나 (좋은 듯이)
 분칠로 치장(治粧)하기 일삼아서
 늦부로 머리 빗고 분(粉) 바르고 이집 저집 출입(出入)할 때
 아홉 폭 긴 치마 긴 대로 땅에 끌어
 오촌댁 칠촌댁 일도 없이 왕래(往來)하네
 눈치도 과히 없네 남 웃는 줄 모르는가
 이력저력 소일(消日)하고 어느 여가(餘暇) 세간살이
 소부치산(少婦治産) 하는 체로 약간의 곡식(穀食)을 덜어낼 때
 고기장사 과일장사 외치는 소리 귀에 얼른 듣고
 옥신각신 불러 들어 종전약취비니여
 이것저것 사들여 이 아이 주며 저 아이 준다
 메주 소금 묵혀두고 김장하기 사람 부림
 조석(朝夕) 때 임(臨)하면 여종 불러 하는 말이
 앞집에서 지엄10 꾸고 뒷집에서 김치 얻어
 후(後) 때 요량 아니하고 휘정거리 먼저 먹고
 도포창의(道袍擎衣) 지을 때면 치산(治産)하기 바쁜 듯이
 큰댁의 작은아씨 작은댁의 조카딸을
 사면(四面)으로 요청(要請)하여 이것저것 맡겨놓고
 인사(人事)는 잇는 듯이 두지단지 싹싹 끊어
 여종 불러 하는 말이 수이익제 이늑뵈메
 써럭열어 손에 지은 의복 깃 달은들 줄을손가
 그것이나 제 하는 듯이 가장(家長)에게 속여서 솜씨자랑 대우한다
 이리저리 허비하고 남은 양식 있을손가
 제사(祭祀)를 당하면 뭇술ㅎ되 어찌 변통하며
 사랑방에 손님이 와도 무엇으로 대적할까
 애꿎은 가장(家長)이라 원망(怨望)하면서 멀리하고 하는 말이

방도(方道) 없는 이 양반(兩班)아 변통성(變通性)도 과히 없네
 환자빚 겨우 내어 천만번(千萬番) 변통(變通)하면
 인역 복에 생긴 듯이 눈동자로 못치닌드
 충복(充腹)하고 남은 음식 남이 알까봐 간수하여
 오시육시(五時六時) 퍼먹으니 식상(食傷)하여 나는 방귀
 위역으로 참을손가 칠팔월(七八月) 초린베틀
 설달 그 정 그저 두고 초생에 짓던 보선
 그믐 그 정 뒤치논드 어린 아이가 울면
 젓 먹인다 유세하고 삼사월 대낮에
 폭증우 퍼뜨리고 자는 아이 젓 먹이고
 해 가는 줄 모르다가 시부모의 기침 소리
 깜짝 놀라 일어나 앉아 눈곱을 후비면서
 흘은 머리 다시 얹고 하품을 못 이겨서
 기지개 부두두 켜며 조던 헌적숨 기르고
 한 손으로 무릎 잡고 일어나니
 치마폭에 아이의 똥은 여기저기 발려있고
 방구석에 천 기저귀 여기 모아놓고 저기 모아놓고 모아모아 싹엮구나
 마구 같은 방구석은 냄새도 부끄럽다
 이웃집에 초상나면 제 해(害)롭다 일 안하고
 앞집의 베틀 소리 연병의 까마귀 소리
 가소(可笑)롭다 하는 말이 저러하면 부자(富者)되기
 내 팔자(八字) 좋은데 시어머니 내 복(福)이 어디 갈까
 귀경이라 있다하면 남보다 움직이고
 아이 선다 유세하고 신 것 찾기 괴변이네
 모과 석류 伏성외춤 온갖 실과(實果)는 어이 그리 잘 찾는고
 물레자리 잡기와 양지(陽地) 쪽에서 이잡기를 어이 그리 힘쓰는고
 어머니 어진 마음으로 순순(順順)히 경계(警戒)하면
 제 그른 줄 제 모르고 못된 고집 더욱 내어 통통이며 하는 말
 본태성(本胎性)11이 그러하니 지금 어이 고치는고
 그 가장(家長) 얼른 듣고 한 말 겨우 꾸짖으면
 이불 쓰고 드러누워 사흘 나흘 말 안하고
 조금하면 썩씩긋고 헛티를면 히히긋네
 짧은 운문(韻文) 하는 체로 <풍운전(風雲傳)> <숙향전(淑香傳)>을
 무릎 위에 얹어 놓고 남 보라고 흥흥한다
 끝끝내 못된 투기는 모르고 강생하다
 어와 세상 난부(懶婦)들아 이내 말씀 경계(警戒)하여
 부디부디 경계(警戒)하여 현철부인(賢哲婦人) 되시오
 나부가, 작자미상, 계녀가, 나부가

[각주]

- 1) 초군(樵軍) : 나무꾼.
- 2) 계초명(鷄初鳴) : 닭이 첫 울음을 울어 새벽을 알림.
- 3) 관수(盥漱) : 양치질하고 세수(洗手)함.
- 4) 변두(邊豆) : 제사 때 쓰는 그릇인 변(籩)과 두(豆). 변(籩)은 과실 따위를 담는 데 쓰는 제기(祭器)로, 대나무 조각을 겹어서 굽을 높게 만든다. 두(豆)는 두껍고 굽이 높으며 뚜껑이 있어서 고기붙이, 국 따위를 담는 데 쓰는 나무로 된 제기(祭器)이다.
- 5) 내칙편(內則篇) : 중국 한(漢)나라 시대에 편찬된 《예기(禮記)》의 편명(篇名). ‘내(內)’는 여자들이 거처하는 규문(閨門) 안으로, 주로 규문 안에서 행하는 예절이나 의식이 기록되어 있음.
- 6) 열녀전(烈女傳) : 유향(劉向)이 지은 《열녀전》 8편 15권으로, 나중에 송(宋)나라 방회(方回)가 7권으로 간추린 것. 부인의 유형을 모의(母儀)·현명(賢明)·인지(仁智)·정신(貞慎)·절의(節義)·변통(辯通)·폐열(嬖孽)의 7항목으로 나누어, 항목마다 15명 가량을 수록하였다. 유명한 현모·양처·열녀·투부(妬婦)의 이야기는 모두 다 나와 있다.
- 7) 칠거지악(七去之惡) : 예전에,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일곱 가지 허물. 시부모에게 불손함, 자식이 없음, 행실이 음탕함, 투기함, 몹쓸 병을 지님, 말이 지나치게 많음, 도둑질을 함 따위이다.
- 8) 갈담시(葛藟詩) : 시경(詩經)에 나오는 시편(詩篇). 천자(天子)의 후비(后妃)로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부지런히 길쌈을 하며 집안일을 다하면서도 친정부모까지 생각하는 온후한 마음씨를 노래.
- 9) 상답 : 자녀의 혼인에 쓰거나 뒷날에 쓰기 위해 마련해 둔 옷감.
- 10) 지영 : 간장.
- 11) 본태성(本胎性) : 어떤 병이나 증세(症勢)가 어떠한 까닭 없이 본디의 체질적(體質的)인 영향(影響) 때문에 일어나는 성질(性質).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